

길림대학 조선어(한국어)과 한국어회화교육의 실제*

- 실용회화교육을 중심으로 -

김지훈**

|| 차례 ||

- I. 서론
- II.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교육의 실제
- III.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소재한 길림대학 조선어(한국어)과에서 진행된 실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회화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론에서는 2012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학회에서 발행한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에서 공통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교수자와 교재의 문제점과 더불어 국내에서 한국어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본과 진학 및 취업 시 겪게 되는 문제점에 주목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경제적 여건과 제약으로 발생한 공통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고는 경제적 상황이나 교육시스템적 문제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교재의 활용과 교수자의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2015’

한민족어문학회 창립 40돌 기념 전국학술대회(제318차)에서 발표한 자료를 논문으로 완성함.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조교수.

교수법에 주목하여 논지를 전개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본론에서는 수요자 즉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용회화교수법을 실제 길림대학 조선어(한국어)과에서 진행된 시안을 통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매 교재마다 빠지지 않으면서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 중 하나인 자기소개를 예를 들었다. 결론에서는 앞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교육에서 중요한 점은 말하기와 듣기의 중심에 ‘나’라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어 : 한국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회화교육, 실용회화, 상황중심.

I. 서론

본고는 중국 현지, 吉林省長春市에 소재한 吉林大學에서 이루어진 한국어회화교육¹⁾에 대한 경험적 소고로서 한국어회화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초급반 수준 이상으로 판단하고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운영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첫째,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과정은 ‘통합교과’를 지향하고 있는데 문법을 비롯한 여러 과목들이 초급단계에서부터 한국어로만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과정을 거친 학생이 국내 대학의 본과로 진학할 경우 대부분 강의 내용의 반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

1) 필자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吉林省長春市에 소재한 길림대학 외국어학원에서 중국 한족을 대상으로 한국어회화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에서 외국어학원은 한국의 사설학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외국어 단과대학을 뜻한다.

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학습 초기에 같은 모국어권의 학습자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거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다음은 국외(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012년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중국한국(조선)어교육학회에서 발행된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²⁾에 실린 11개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지목된 문제점은 교수자³⁾와 교재⁴⁾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결방안에 대한 실천은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시적인 문제점은 외국인교수(원어민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이다. 중국의 해당 교육단체에서도 교육의 질 제고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관련 학사 및 석·박사 졸업생을 선호하지만 현지의 낮은 임금⁵⁾으로 인해 국내의 석·박사 졸업생들이 해외에서의 수고로움을 경험하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예외적으로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의 대학이나 기업에서 정식 체결을 맺고 파견되는 경우에는 임금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전체 파견된 인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전자의 경우보다 자매대학교 교류형식, 중국대학 자체 초빙 형식으로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까닭으로 중국

2) 김병운 엮음,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2.

3) 본고에서 교수자라 함은 외국인교수(원어민교사)로 그 뜻을 한정시켰다.

4) “교재는 교사, 학습자와 함께 외국어 교육 현장의 3대 요소로 불린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무엇’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그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는 총체적인 도구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의 교재는 유형, 무형의 언어 자료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 조직되어 체계화된 교재로부터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음성 자료, 문자 자료가 포함된다.” 조항록, 『교재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의 현황과 주요 쟁점』,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23면, 한국문화사, 2010.

5) 2011-2013년 기준, 한 달에 인민폐 3000-4000위안 정도로 원화 50-70만원의 수준.

에서 한국어교육을 하는 외국인교수의 경우 젊은 층에서는 경험을 쌓기 위해 단기간(1년~2년)다녀오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중국에 거주하다 돌아오는 경우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을 비롯하여 미래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년층은 젊은 층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나 사업을 필두로 전업이 아닌 투 잡 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국어교재는 크게 ‘한국에서 발행된 것을 교재를 계약하여 재발행된 것’과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되고 발행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현지에서 한국어 원어민강사는 학생들에게 외국인교수(外教) 혹은 한국선생님(韓國老師)으로 호명된다.⁶⁾ 필자는 중국에 가기 전 2008년부터 2011년 1학기까지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생활국어, 실용문장론, 문서서류작성법 등의 강의역력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 본 강의에 투입이 되었다. 학교 측의 요구는 회화 강의인 만큼 “학생들의 입을 틔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한국어 문법을 비롯하여 읽기, 쓰기, 듣기 등의 과목은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인교수자들이 강의를 한다. 따라서 외국인교수가 중국어에 대한 사전 공부만 되지 않아도 보완이 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강의를 대화의 관점으로 볼 때 외국인교수 또한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필자 또한 강의 1년차 초반에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울 때는 영어나 전자사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비체계적이고 번거로운 행동을 반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져 강의 진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함을 경험했다. 본론에서는 길림대학에서 이루어졌던 한국

6) 본고에서는 현지에서 직접 호명되었던 외국인교수(外教)로 통일했다.

어회화교육의 실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길림대학 한국어회화교육의 실제

한국어회화교육에 있어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상황은 실용회화다. 중국 내에서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강의 시간과 한국인 유학생들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교재 중심 학습만으로는 동아리 활동에서 만난 또래집단과의 회화가 순조롭지 않을 호소한다. 예컨대 교재에서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라는 문장이 실제 한국인 유학생과의 대화에서 “뭐 좋아해?”, “뭘 켈(제일) 좋아해?” 등으로 바뀌는 경우 학생들은 “뭐”라는 단어와 “켈(제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이 사용된 교재를 공부하는 동시에 실용회화 위주의 회화교육도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는 대부분 통합 교재이다. 이는 통합 교수를 지향하는 국내의 사정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길림대학 한국어과 교재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교재에 따라 교수자가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외국인교수의 경우 통합교재⁷⁾를 제공 받아 강의를 한다. 필자는 학교에서 제공된 통합교재 각 단원의 본문을 중심으로 ‘준비단계-연습단계-실천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실용회화 중심의 회화교육을 진행했다.

7) 길림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재는 총 4권으로 교재1(30과), 교재2(35과), 교재3(33과), 교재4(27과)로 구성되어 있다.

1. 준비단계(목표의식 심어주기)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제시된 예는 목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대화로 실제 2학년 강의의 예다.

교수자: 여러분, 어제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70위안을 냈어요.

학생들: 아아! 아니예요. 너무 많아요.

교수자: 네? 무엇이 많지요?

학생들: 돈이 너무 많아요.

교수자: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요.

아마도 여러분은 “돈을 너무 많이 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겠지요?

학생들: 네! 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교수자: 여러분들은 평소 머리 자르는 데 얼마를 내나요?

학생들: 20위안이요. 30위안이요!

교수자: 자, 돈을 너무 많이 냈지요? 바가지 썼지요?

학생들: (웃음)

교수자: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다.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학생들: 네,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다! 선생님, 사기 당하다, 바가지 쓰다!

교수자: 하하, 그런가요? 선생님이 중국어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겠지요?

학생들: 네!

교수자: 여러분들도 곧 한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들: (웃음)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요!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과정은 반복학습이나 암기식 위주의 회화수업이 주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어과로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영향이고 그 다음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관련이 많다. 그밖에 다른 외국어를 배우고자 했으나 성적에 맞게 과를 선택하다보니 한국어과로 진학하게 되었다는 학생들도 소수지만 존재했다. 처음부터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어 한국어과에 진학한 학생들에 비해 성적에 맞게 전공을 선택했거나 아무런 목표의식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목표의식 심어주기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학습자가 지속적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강의 시간 외에도 학습자가 교수자를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면담이나 고민상담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⁸⁾이다. 길림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 채팅 앱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이썬(微信)과 QQ를 통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학습 및 면담활동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특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웹과 앱 기반의 전자사전이나 번역기를 활용하면 말하기뿐만 아니라 통합적 교육으로서 한국어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2. 연습단계(흥미 복돋우기)

“연습단계”는 이어질 본문 내용을 예측하여 말하는 과정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장연습보다 단어연습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단어

8) 필자는 오프라인은 물론 웹·앱 기반 채팅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강의 후 저녁시간에 학생들과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활용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이는 강의 후 활동에 속하지만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효율적인 한국어교육이 되었다. 음성기능을 통해 전화는 물론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도 배양할 수 있는 매체로 활용되었다.

연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놀이학습은 ‘끝말잇기’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상대방이 제시한 단어의 끝말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으로 자기주도학습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학기 초나 학기 말에 ‘끝말잇기대회’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한국어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자기주도형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큰 몫을 차지했다. 2학년 2학기 무렵에는 끝말잇기뿐만 아니라, 이야기 만들기도 진행을 했다. 먼저 교수자가 상황에 따른 대화문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여 말하는 방법이다.

교수자: 꽃이 예쁘게 피어난 봄입니다. 학교 도서관 앞입니다.

여학생이 무거운 책을 들고 가다가 남학생과 부딪혔어요.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남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학생들: 남학생이 책을……

교수자: 아, 그런데 남학생 손이……

학생들: (웃음) 손을 잡았어요!

교수자: 누가 누구의 손을?

학생들: 남학생이 여학생의 손을 잡았어요!

교수자: 여학생의 얼굴 색깔은?

학생들: 빨간색, 빨강, 붉은색!

교수자: 남학생이 말해요. 저기, 실례지만 이름이?

학생들: 김태희! 송혜교!

교수자: 네, 저는 김태희라고 해요.

학생들: (환호성) 와!

교수자: 그쪽은?

여기에서 눈여겨 볼 것은 대화가 단순히 흥미위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자기소개’ 단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교재의 긴 문장과는 달리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장으로 현장감과 동시에 교재에서 배우지 못했던 대화를 학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3. 실천단계(교재의 활용)

마지막으로 “실천단계”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상황에 맞는 대화문을 완성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뒤에서 직접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교재에 제시된 ‘소개’는 단편적이며 실용회화와는 차이가 있다. 물론 초급반의 경우 교재의 기본 대화문 정도만 습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한국유학 면접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는 문제가 있다. 또한, 중·고급학습자들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작성 시 ‘상황 중심의 대화문 만들기’를 계획할 수 있다. 여유가 있다면 개개인이 원하는 자기소개의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강의시간 중에 다룰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한국유학 면접, 어른 및 친구에게 자기소개하기”를 주제로 하여 상황중심 회화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표 1〉 길림대학 한국어교재의 단원별 주제

단원	주제
1과	소개
2과	수업 시간
3과	우체국
4과	신문
5과	전화
6과	이야기 책
7과	시장
8과	이급반
9과	등록
10과	설날

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한국어교재의 단원별 주제는 대부분 단어나 명사형으로 끝나는 경우로 통일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주제 전달의 명료성에 있어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회화가 문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핵심 문장이 부제형 식으로 함께 제시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필자는 제목과 부제를 ‘단어와 문장’으로 함께 구성하여 매 강의시간마다 판서를 하거나 화면으로 제시했다. 즉, 교재를 재구성할 때 각 단원 별 명사형(단어) 주제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핵심 문장을 앞 장에 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1과의 주제 ‘소개’의 경우 부제로 “안녕하세요! 저는 ()입니다.”를 함께 표기해 놓으면 시각적 전달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오래 기억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교수자가 다음과 같이 단원의 내용을 미리 파악한 후 주요 문장을 따로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吉林大學外國語學院
教學日歷 (2012-2013 學年 第 2學期)

課程名稱:韓國語會話 課程性質:專業必修課
考核方式:考試 授課班級:
上課周數: 授課教師:金志勳

周次、日期	教學內容 (包括章節內容、測驗等)	時數	作業	備注
第1周 (3月4日-3月10日)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김지훈)입니다.	2		
第2周 (3月11日-3月17日)	수업시간: 누가 아직 안 왔어요?	2		
第3周 (3月18日-3月24日)	우체국: 이것을 부치고 싶은데요 요금 얼마지요?	2		
第4周 (3月25日-3月31日)	신문: 한겨레신문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2		
第5周 (4月1日4月7日)	전화: 여보세요. 거기 ()씨 집이지요?	2		
第6周 (4月8日-4月14日)	이야기 책: 다 읽었어요? 더 쉬운 것을 빌려줄까요?	2		

第7周 (4月15日-4月21日)	시장: 여기가 남대문시장이에요. 옷과 신발을 사고 싶은데요.	2		
第8周 (4月22日-4月28日)	이급반:2급반에서 공부할 학생입니까?	2		
第9周 (4月29日-5月5日)	등록: 한국어반에 등록을 하러 왔어요.	2		
第10周 (5月6日-5月12日)	설날: 설날 아침에는 떡국을 먹어요.	2		

制表人: 金志勳

- 注: 1. 本日歷一式三份, 一份交教務處, 一份交院(系、部)辦公室, 一份由本人留存。
 2. 本日歷由學院(系、部)負責組織檢查, 學校不定期抽查; 執行教學日歷允許誤差爲2學時。
 3. 教學內容、教學進度相同的教師使用同一教學日歷。
 4. 作業、測驗等要寫清楚。多媒体教學、雙語教學、軍訓、實習等要在備注欄中注明。
 5. 考查課只寫到第18周, 第19、20周刪掉; 考試課, 要寫到第19、20周, 并寫上“複習考試”。
 6. 教學日歷要双面打印。學院(系、部)領導: _____ (簽章)
 2012年 月 日

한편, 단어 공부에서 중요한 점은 교수자가 학생들의 단어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다. 제시된 단어의 뜻만 찾고, 반복적인 쓰기와 말하기 연습만 할 것이 아니라 제시된 단어의 유의어, 반의어, 관용어 등을 연계하여 스스로 찾아보게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 과 소 개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생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내 이름은 최영입니다. 오늘부터 2급반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학생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 학생부터 해 볼까요?

앙리: 안녕하세요? 저는 앙리라고 합니다. 일 년 동안 한국말과 역사를 공부하러 왔어요. 파리에서 한국어를 다섯 달 배웠지만 잘 못해요. 여러

분을 알게 되어 참 기쁩니다.

소개, 여러분, -게 되다, 자기, -(이)라고 하다, 년, 동안, 달, 알다, 기쁘다, 소개하다, 주일, 불어, 모차르트, 문학, 피아노, 독어

아래는 학생 과제의 예시.

-아 래-

<학생 단어장>

알다-모르다/기쁘다-슬프다/불어-독어-영어-일어-한국어

<예상 질문-답변>

- 1)파리는 어떤 도시인가요? 프랑스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 2)취미가 무엇인가요? 독서와 등산입니다.
- 3)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불고기를 좋아합니다.
- 4)제 이름을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 5)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일주일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학습자가 교재에서 소개된 내용만 단편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11년 겨울 길림성 대학생 한국유학 면접’에서 발표한 실제 예를 보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면접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길림대학교 한국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묘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의 대학교에서 배우고 생활하면서 한국을 몸소 느껴보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 그리고 저 네 식구입니다.

저의 고향은 산둥성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의 태산과 고소한 땅콩으로 유명합니다.

기후는 사계절이 분명한 편입니다.

특히 봄에는 산과 들에 꽃이 많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산둥은 중국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의 취미는 소설책을 보는 것입니다.

소설 중에서 중국고전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소설을 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를 먹으려면 수원에 가서 먹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한국의 남쪽에 있는 가장 큰 섬이고

봄이 되면 바닷가에는 노란색 유채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그리고 그곳의 역새와 한라산, 서귀포 모두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의 K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K대학교는 한국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동아리가 많아서 학생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장서를 구비한 큰 도서관과 아름다운 풍경 또한

제가 K대학교를 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학업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유학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하겠습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자주 도서관에 가서 다독(多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생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말하기능력

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휴일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듣기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생활은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앞으로 한중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문학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문학과 문화 관련 작품이 중국어로 제대로 번역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습자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말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4학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교재의 전체를 이해시키려고 하기보다 학습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재의 내용만 단순 암기시킨다든지 제시된 단어만 찾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자기소개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만나 대화를 할 때 문제점이 생긴다. 가장 큰 문제점이 본인이 질문을 한 후 정작 답변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말하기와 듣기가 대화라는 범주 안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은 질문과 답변이라는 전제 하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국내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교재나 교수자의 문제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이것은 교육의 질적 제고에 대한 반성과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실천적 교육으로 진행해야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론에서는 교재와 교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상황 중심 실용회화의 실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현장이나 한국어회화교육 관련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시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교육의 목적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대화의 중심에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다. 화자와 청자는 일종의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학습상황은 ‘나’가 화자가 되었던 청자가 되었던 ‘나’라는 주체는 관계와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어회화교육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실용회화 학습도 병행해할 것이다. 이때 활용될 수 있는 교수법 중 하나가 수요자 중심의 즉 상황 중심 회화교육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대화의 주체’인 동시에 ‘말하는 주체’임을 인식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어회화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교재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회화교육은 기존의 교재와 더불어 실용회화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고를 마무리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한국어 1』, 1997.

_____, 『한국어 2』, 1997.

_____, 『한국어 3』, 1997.

_____, 『한국어 4』, 1997.

2. 논문 및 단행본

김병운 엮음, 『중국대학 한국어교육실태조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12.

나은영 · 나은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9호, 2014.

조향록, 『한국어교육 현장의 주요 쟁점』, 한국문화사, 2010.

채영희 · 이미지,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한 한국어교재』, 동북아문화연구 제22집, 2010.

Abstract

The practice of Korean conversation education
at a Chosun language (Korean) department of Jilin University

Kim, Ji-Hun

This thesis is based on an actual education experience that was processed at the Chosun language (Korean) department of Jilin University located in Cangchun city, Jilin providence from July 2012 to July 2013 and the purpose is to look into the issues of Korean conversation education for local and foreigners and to present a plan for it.

In the introduction, it focused on the issues of the teachers and textbooks that were commonly stated in the 『China University Korean education status』 issued from the 2012 China Korea(Chosun) language education committee along with the issues of the students' advance in actual studies and getting jobs after they finish their Korean education program. Although the former and latter has its common issues in economical terms and limits, this thesis focused more on the utilization of the textbook that can be improved at the filed and the teaching method of the teacher rather than the economic status or educational system issues.

Based on such points, the main subject presented the actual draft of a real conversation teaching method that is needed by consumers (students) that was processed at the actual Chosun(Korean) department at Jilin university. In details, it took an example of a self-introduction among the themes that are needed by students and is always included in textbooks. In the conclusion, it stated that the important points in Korean conversation education for foreigners is to acknowledge there is a 'me' in the center of speaking and listening and looked deeply into the continuous research plans.

Key Word : Korean, Korean education for foreigners, conversation education, real conversation, field based.

김지훈

소속 :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연구전담 조교수

주소 :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303호

전화번호 : 041-550-3776 / 010-6536-0619

전자우편 : poet0619@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0일 게재 확정됨.
--